



—南北比較—

# 南北韓國民消費生活水準比較

보 관 용

(국통조) 1/5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内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比較—

# 南北韓國民消費生活水準比較

研究執筆責任 李 承 潤

(略歷)

美國 위스콘신 大學校 卒業(1960)

서울大, 西江大, 延大 教授歷任 (1961~75)

現在 國會議員

刊行責任 金 明 (調査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第 1 章 序 論 .....	3
第 2 章 国民消費生活水準의 南・北韓 比較 .....	8
가. 國家施策의 差異 .....	8
나. 所得, 投資(貯蓄) .....	15
다. 總生産의 增加와 國防費의 相關關係 .....	25
라. 租稅, 軍事費의 負擔率과 南・北韓 所得水準의 比較 .....	29
第 3 章 住民生活實態의 比較 .....	32
가. 消費「패턴」과 階層別 貨金 實態 .....	32
나. 住民 衣食住 生活實態 比較 .....	41
다. 階層形成, 意識構造 .....	45
第 4 章 国民生活水準의 長期展望 .....	53
가. 福祉, 厚生政策의 基本方向 .....	53
나. 住民生活水準의 長期展望 .....	55
第 5 章 經濟的 側面에서의 綜合展望 .....	64

## 第 1 章 序 論

本研究報告書의 目的은 南·北韓의 國民消費生活水準을 体系的으로 比較하는데 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 오늘날 南·北韓은 體制와 理念이 根本的으로 다를 뿐 아니라 經濟體制와 富에 對한 價值觀이 相異할뿐 아니라 제반 經濟施策에 對한 國家目標 또한 相異하다. 一般的으로 第二次 世界大戰以後 大部分의 先進國은 지난 '30年代의 世界的 大恐慌을 契機로 하여 經濟施策의 基本方向도 「인프레」없는 安定 成長에 集中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이같은 現象의 根本原因은 두말할것도 없이 모든 國家가 國民福祉政策에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自由主義諸國은 「인프레 없는 持續的 成長」 ( Sustained growth without inflation )으로서 失業率을 極小化하고, 各種稅制의 改革과 租稅政策으로서 階層間 富의 平等을 追求하고 있으며 또한 끊임 없는 技術의 革新으로서 야기된 勞動生産性의 向上은 소위 「生産性賃金制」를 만들어 大幅的인 賃金引上을 招來하여 生活水準을 提高시키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特徵이다.

그러나 原來 「리칼도」( David Ricardo, 1971 )의 分配論으로 부터 派生한 「맑스」의 經濟學이 「프로레타리아의 地上樂園을 豫想하고 있는 것과는 正反對로 오늘날 大部分의 共產圈諸國은 勞動生産性의 低下와 輕工業分野의 침체로 말미암아 生活水準은 이미 지난 '50年代以後에 들어와서 自由主義諸國과 比較할때 더욱 뒤떨

어 지고 있는 現象을 찾아 볼수 있는데 이같은 事實은 오늘날 蘇聯, 東歐의 모든 諸國뿐 아니라 北韓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顯著하다.

北韓에서는 過去 數차례에 걸쳐 새로운 經濟計劃을 提示할때마다 그들 特有的 「社會主義工業化」를 세창하면서 人民生活의 劃期的 向上을 約束하고 있으나 共產主義 統制經濟體制下에 서는 分配構造가 根本적으로 配給制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交換의 自律性이 없고, 農民들의 產出物은 低評價되고 있으며 反對로 國營下의 工產品價格은 極度로 高評價되고 있는데 現在 蘇聯의 경우에도 一部 工產品價格은 國際價格水準의 約 10 倍나 비싼것이 허다한 상황이다.

이같은 一聯의 過程에선 人民에 對한 착취 이외엔 盛行하는 것이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 農產物의 供出價格을 時價의 25%로 集團 農場에서 收買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5%는 實質적인 稅收로 吸收되는 셈이다.

蘇聯經濟의 3次 5 個年計劃當時에 計算에 依하면 人民에 對한 稅金은 生産物의 68%라는 높은 負擔이 算出되고 있는데 이點 北韓에 있어서는 投資財源調達에 主力을 기울이고 있는 初期의 計劃 經濟下에 있는 만큼, 70-75%의 稅金賦課의 實態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 豫想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人民生活의 劃期的 向上이라 하고 있지만 角度를 달리하여 消費財의 供給量을 참고로 할때 北韓의 經濟福祉가 어떠한 水準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即 工業化를 強調하고 있는 北韓의 工業總生産量 가운데 消費財는 겨우 14%밖에

없다. 이것이 發表된 그대로 事實이라면 重工業發展을 자랑하는 北傀의 声明自体가 오히려 그대로 北韓人民의 消費財不足을 反映하는 發表가 되는 것이다. 即 北韓의 豫算規模는 GNP의 約 74% 인데 이같은 豫算의 過半數는 軍事費支出과 政府投資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人民生活의 向上은 커녕 独裁政權下에서 착취만을 強要 當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北韓은 이제껏 經濟政策에서 突出的 重工業優先策을 強行해 왔는데 北韓의 重工業優先策은 本来 「스탈린」主義의 유산이 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歴史的으로 볼때 當時의 「스탈린」은 西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初期 社会主義建設을 하지 않으면 안될 危機 意識속에서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体系를 갖추어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늘의 北韓은 「스탈린」時代의 蘇聯과 여러가지 条件이 相異한데도 不拘하고 重工業優先策을 고수한다는 點은 經濟建設初期의 그들 独自の인 經濟政策이 不在한 가운데서 蘇聯의 政策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現象이 마침내 金日成 權力和 密着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侵略政策의 要求로서 계속 強行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韓國을 포함한 西歐諸國의 工業化過程을 볼것 같으면, 原来 重工業은 1次産業의 뒷받침을 비롯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된 바탕 위에서 그發展이 (가능한 것임을<sup>1)</sup> 볼수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와 같은 技術的 基盤이 갖추어 지지 않은

---

註 1) Simon Kuznet: Six Lectures of Economic Growth, PP.13-14

채 重工業에 편중하였기 때문에 住民生活를 極度로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同時에 産業間의 不均衡이 深化되어 오히려 全体經濟發展마저 差質을 招來하는 惡循環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은 現在 그들 社會主義工業化와 重工業優先策을 軍事力의 뒷받침을 하는데 1次的 目標을 두고 있기 때문에 戰爭準備와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侵略政策의 表現이기도 한 것인데 이같은 事實은 北韓의 指導層 内部에서 까지 金日成의 重工業優先策을 反對하는 見解가 있다는 事實이 金日成의 연설<sup>1)</sup>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그反對派를 모두 숙청하여 버렸기 때문에 以後 重工業 優先을 스스로 否認하는 것은 그의 權威를 상실케 하고 權力의 위협을 自招하는 事實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는 南·北間 國民消費生活의 水準을 比較의 對象으로 삼았고, 그 範圍를 微視的 (Micro) 側面과 巨視的 (Macro) 側面으로 兩分하였다. 우선 巨視的 側面으로서 前述한 南·北間의 經濟施策을 中心으로 政府의 租稅·投資政策과 國防費支出現況을 各 各 工業化過程과 關聯하여 檢討하여 보았고, 微視的 側面으로서는 國民經濟中 分配面을 中心으로 하여 生活實態를 檢討의 對象으로 하였다. 即 家計所得과 支出, 物價構造, 衣·食·住 現況, 福祉厚生 制度等を 對象으로 하였으나, 微視的 側面에 서의 南·北韓의 比較는 北韓經濟統計의 制約性으로 因하여 細部的인 面에서는 不可能하

註 2 ) 1958 年 8 月勞動黨 代表者 大會

었다는 면을 밝혀 둔다.

그것은 異質化된 共產體制下에 서의 北韓이 家計支出, 消費, 貯蓄의 行態가 自由主義 體制와 같을 수 없고 福祉에 對한 概念과 意識構造 自体가 우리와는 判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끝으로 國民經濟發展과 生活水準向上의 長期展望을 '80年代를 中心으로 하여 檢討하였으며 이와 같은 經濟發展과 生活水準의 格차가 長期的인 面에서 南·北接觸 關係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問題와 우리 政府의 平和統一政策과의 相關關係를 分析의 主對象으로 設定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 第2章 国民消費生活水準의 南·北韓 比較

### 가. 國家施策의 差異

本章에 서는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난 經濟政策이 追求하는 目標과 厚生에 對한 概念設定을 資本主義經濟體制와 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맑스」의 理論을 比較分析하고 現代社會가 追求하고 있는 當面課題를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一般的으로 經濟政策의 目標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한데 私 有財産을 基반으로 하는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나 또는 生産手段이 國家의 全面管理下에 있는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나 國民經濟의 持續的 成長에 따른 富의 增大에 두고 있음은 共通的인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經濟行爲自体는 自由主義體制나 共產主義體制를 초월하여 어떠한 國家에 있어 서도 共通的 根本課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 서도 經濟政策의 目標가 國民福祉의 增進에 있다고 하는 것도 結局은 經濟學全體에 부여된 前述한 根本課題를 어떻게 解決하여 國民의 生活을 物質적으로 向上시킬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結付되어 있다.

例컨데 古典學派에 있어서 David Ricardo(1772-1823)는 社會總生産物에서 生産活動에 소요된 社會的 生産費를 差減한 純收入이 經濟的 厚生の 참다운 尺度로 보았기 때문에 總體的 福祉는 오히려 分配의 增大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分配의 增大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

要컨데 古典学派는 經濟福祉를 富의 蓄積이나 그의 源泉으로서의 利潤增大의 形式으로 보았지만 그 概念은 進歩된 産業社会의 諸問題를 取扱하는데 不充分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福祉問題에 있어서의 進一步는 新古典学派의 Alfred Marshall(1842-1924)이나 Arthur Cecil Pigou(1877-1953)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 Pigou 는 厚生經濟學的 性質을 發展시켜서 近代的 主題의 基礎를 形成하였는데 國民經濟的 厚生은 때 체로 國民所得의 크기와 그 社会構成要員의 分配樣式에 依存하며, 여타의 事情이 같은 限(Other Things are equal) 國民所得의 크기의 增加의 어떠한 原因도 一般적으로 經濟的 厚生을 增進시키며 또한 國民所得의 分配가 貧者에게 유리하게 變化하는 것은 經濟的 厚生과 더불어 社会一般의 厚生을 增進시킨 다는 것을<sup>2)</sup> 지적하고 生産의 增大 및 分配의 均等이 結局 總體的 福祉의 增進이 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厚生의 增進은 生活水準의 上昇과 이에 對應하는 所得水準 및 生活水準의 一般의 上昇이 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데, Pigou의 見解에 있어서 社会的 經濟福祉의 最適量

---

註 1) A. Smithies and Others: Economics and Public Policy, Brookings Lectures, Washington, D.C., 1955. PP. 6-12

2) Arthur Cecil Pigou, Economics of Welfare, 1924. London, PP. 104.

( Optimum ) 은 完全競争 그대로는 達成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 所得의 最善의 分配를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施策이 必要하며 , 둘째로 소위 「外部經濟」 ( External Economics ) 를 達成하여 經濟活動의 범위를 擴大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機能의 擴大도 必要하기 때문에 結局 Pigou 에 이르러 福祉問題의 커다란 變化와 더불어 經濟政策의 目標과 그 必然性이 더욱 뚜렷해 진 것이다 .

그러나 福祉問題가 以上과 같은 發展을 經過하고 있을 무렵 '30 年代에 일어난 大恐慌은 經濟政策問題에 있어 서도 새로운 課題를 要請하게 되었으며 古典經濟學에 있어서 最大의 蓄積이 그들의 Vision이었던 것과 같이 '30 年代에 있어 서는 完全雇傭問題가 支配的인 經濟的 要請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

따라서 現代的 福祉問題를 論하는데 主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現代的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過去로 부터 많은 傳承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即 , Keynes 에 의하여 輕視되었던 古典的인 經濟成長의 問題는 오늘날 다시 抬頭되고 있으며 , Pigou 의 所得分配의 問題도 決코 現代的 關心에서 살아진것은 아니다 . 또한 '30 年代의 大不況이 다시 同一한 심도로 再發할 可能性은 적다 하더라도 「인프레」와 失業問題는 의연히 남아 있으며 , 1 世紀 前에는 들어 보지 못했던 雇傭의 安定에 政策的 課題를 設定하는 Keynes 的 方向의 영향은 現在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으로 오늘날의 經濟政策의 主要課題는 여러가지로 分類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主要한 것을 간추려 볼때 , A. Smithies 는 첫째로 , 持統的인 經濟成長과 安定된 雇傭水準 ( Sustained growth

With Stable employment), 둘째로 「인프레」없는 物価水準의  
안정과 均衡的 所得配分, 끝으로 市場機能을 통한 資源의 最適配分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持續的인 成長이라 함은 1人당 實質所  
得의 持續的 增加를 意味하며 소위 經濟福祉의 實質的 內容을 말  
하는 것으로서 生産力の 增加가 1人당 平均所得을 增加시키는 狀  
態가 經濟成長이라고 할수 있다.

要컨데 成長이 없이는 經濟的 變영도 福祉의 增進도 期待할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만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는 古典學  
派의 時代와는 相異한 狀況下에서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經濟成長  
의 理論的 내지 政策的 研究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  
다.

그러나 多幸이 '50年代와 '60年代에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볼것 같으면 資源에 「最適配分」에 依한 經濟成長率은 共產主義經  
濟體制보다도 오히려 西方自由主義 經濟體制가 훨씬 높다는 것이  
特徵이다. 또한 「인프레」망지와 雇傭問題는 自由主義諸國이 當面  
한 問題로서 經濟體制自体가 不斷한 동요를 일으켜 國民生活이 곤  
난하게 되는 現實的 要請에서 問題化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끝  
으로 所得配分 및 社會的 均等化問題에 있어서는 Pigou 에 이  
른 바 國民所得의 適正한 分配로 부터 始作하여 Smithies 에  
있어서는 均衡的 所得分配와 社會保障으로 되어 있는데 社會的 均  
衡이 라고 일컬어 지게 된것은 아마도 經濟政策에 있어서 最終的  
이것도 가장 重要한 目標가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國際經濟政策面을 볼때 從來의 封建經濟體制下에서 開放

經濟體制로 移行됨에 따라서 國際經濟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無視할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一國의 經濟政策을 고려할 경우 國際經濟環境을 無視하고서는 精確한 國內經濟政策樹立을 期待할수 없다.

그럼으로 國際的 側面에 서는 國際經濟의 安定等を 표방하고 있는 바 貿易의 多角化, 國際收支均等 問題, 通貨의 交換性等이 政策的 論題가 되고 있음은 勿論이나 오늘날 大部分의 自由主義諸國에 있어서는 開放體制下에서 地域的인 特化, 分業의 擴大, 資本의 輸出出入等 急激한 發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比하여 共產圈經濟體制는 閉鎖體制下에서 技術革新의 낙후, 地域的 特化의 制限된 범위내에서 낮은 水準의 經濟發展과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는데 現在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國은 '6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貿易의 擴大로 因하여 그들 潛在貿易量을 增大시키고 있으나 反面에 中共이나 北韓과 같은 經濟發展이 落後된 共產諸國은 아직도 政治的 明分을 앞세워 閉鎖體制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의 制約要因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한편 以上과 같은 古典經濟學派에서 抬頭된 經濟的 厚生問題와 關聯하여 「맑스」의 分配論을 볼것 같으면 「맑스」는 原則적으로 「리칼도」의 分配論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展開되고 있다. 卽 「맑스」는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中心으로 資本主義社會에서 發生하는 勞·資間에 對立, 企業独占의 深化, 궁극적으로 社會的인 總需要의 감퇴로 因한 恐慌과 더불어 資本主義經濟體制的 붕괴를

主張하게 되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맑스」의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은 根本적으로 分配問題를 中心으로 展開되고 있는데 剩餘價值說의 根本적인 問題點은 모든 生産物의 價值나 利潤의 根拠가 人間의 勞動力만에 依해서 創造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特定の 財貨를 生産하기 위하여서는 勞動力以外에도 資本이 라든가 原料, 企業能力, 其他의 生産要素等이 必要한 것인데 資本에 依해서 機械나 原料가 購入되고 勞動者가 雇傭되어 비로서 商品이 生産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財貨의 價值는 資本과 勞動의 結合으로 生産됨으로 그價值는 반드시 資本과 勞動의 兩使에 歸屬되어야 하나, 「맑스」에 있어서는 오직 勞動力만으로 創造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價值의 全部를 찾아 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勞動의 生産性만이 認定되고 資本의 生産性은 認定되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根本적으로 「맑스」以前의 古典學派經濟學의 分配問題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厚生問題가 勞·資間의 均衡을 어느 정도 상실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西歐産業社會에 있어서 資本蓄積과 生産性과의 關係는 새삼 強調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며 資本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고 勞動力으로 生産된 剩餘價值를 착취한다는 主張은 그 근거가 희박한 것이며 오히려 西歐産業社會의 共通的인 양상은 GNP의 增加와 더불어 階層間의 所得配分은 漸次 더욱 平準化되어 가고 있는데 反하여 共產圈의 蘇聯이 라든가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오히려 投下資本에 對한 利率과

收益性이 더욱 重要視되어 가고 있는 現象을 찾아 볼수 있다.

또한 「맑스」는 勞動者의 賃金이 恒常 再生産過程에서 最少限의 生存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主張하였으나 經濟가 高度로 發展한 歐美諸國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勞動者의 賃金도 勞動生産性과 같이 恒常 上昇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最近에 와서 先進諸國은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를 採択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인 措施를 取하고 있는 現象은 오히려 「맑스」가 豫測한 것과는 크게 相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맑스」의 理論이 다당하다고 하면 賃金水準은 勞動者의 生存線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같은 線 以上에 것을 意味한다고 解釋 한다면 「맑스」의 剩餘價值說은 結局 無意味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맑스」의 豫言대로 勞動者에 對한 착취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勞·資間의 不均衡보다도 오히려 共產主義 社會에 常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共產主義國家에서 「맑스」가 말한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주로 軍事力 增強이다든지 獨裁機構強化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와 勞動者들의 實質的인 厚生問題는 더욱 顯著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設備과 技術의 革新으로서 勞動生産性を 提高시키려는 勞力보다는 一方的인 勞動力 投入만을 強調함으로써 全體的인 經濟發展마저 抑체되고 있다는 事實을 볼수 있다.

## 나. 所得, 資(貯蓄)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있어 서의 財政의 役割은 時代의 變遷함에 따라 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는데 反하여 오늘날 共產主義體制는 制限된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의 認定과 價格機能의 認定, 企業의 利潤制導入과 獨立採算制 등으로 因하여 國家經濟計劃의 重要性이 蘇聯과 東歐諸國에 서는 漸次 감소해 가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經濟 및 社會體制와 制度를 달리하고 있는 韓國과 北韓의 國民總生産에 對한 增加率과 이에 對한 租稅負擔率을 比較한다는 것은 주어진 資料가 充分하다 하더라도 制約要因을 形成하게 되는데 總生産에 對한 概念이 相異할 뿐 아니라 財政現象은 各己 國家社會의 經濟現實을 反映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政策이 追求하는 目標가 달라 짐에 따라 財政現象도 各己 달라지기 때문이다.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 財政活動은 相對的인 意味를 갖는 것이며 그 重要性이 漸次 增大해 가고 있는 反面에 社會主義體制에 있어 서의 財政活動은 絕對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나 그 重要性이 漸次 減少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本章에 서는 앞서 說明한 國民厚生에 對한 諸學說을 基礎로 하여 南·北韓의 國民總生産의 增加率에 對한 國民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의 相關關係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왜냐 하면 國民厚生의 巨視的 側定은 1次的으로 各己 政策目標에 따른 資本의 蓄積率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으며 擴大再生産過程에 서의



資本의 蓄積率은 무엇 보다도 國民의 租稅負擔率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인데 이點 間接稅形態를 爲主로 하고 있는 共產主義經濟體制도 同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各己 政策의 目標가 相異함으로서 야기되는 國民厚生과 關聯이 없는 軍需産業과 國防費의 支出現況이 크게 差異를 招來함으로서 實質的인 國民厚生은 顯著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軍專費負擔率과 租稅負擔率의 差異를 究明하는 것이 바로 巨視的 側面에서의 厚生函數를 側定하는 要因으로서 抬頭하기 때문이다.

#### (1) 國民總生産과 投資率의 比較

優先 總量面에서 지난 10年間의 實績은 '60年代 後半期부터 高度成長이 点火되어 '65年度부터 '74년까지의 韓國의 平均經濟成長率은 10.3%에 達하고 있는데 1963년부터 1973년까지는 韓國經濟史에서 하나의 轉換期的인 激變期로 記錄될수 있다. 即 傳統社會에서 「跳躍段階」를 거쳐 高度成長期를 구축 하였는데 同 期間동안에 輸出入規模의 비약적 增加와 産業基盤의 近代化가 本格的으로 뿌리를 내리기 始作하였다.

무엇 보다도 期間의 政府主導型的 高度成長은 1次 5個年計劃期間에는 主로 電力, 石炭等 基礎「에너지」開發과 基幹産業, 社會間接資本 擴充에 主刀하였고 輕工業을 위시한 輸入代替産業에 모든 施策을 集中하였다.

다음 2次 5個年計劃의 目標는 重工業部門을 中心으로 한 鐵鋼, 機械工業等を 위시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農家所得增大 및 科學

技術의 振興에 注力하였으며 3次5個年計劃은 重化學工業의 集中的 育成과 食糧自給 및 農家所得增大策으로서 都市와 農村間에 所得配 分の 均衡을 爲한 施策과 더불어 國土綜合開發과 科學技術의 革新 에 重點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이 政府에 成長政策에 依한 高度成長에 힘입어 韓國은 '65年度부터 '76까지의 12年間 GNP規模는 30億弗에서 252億弗로서 約 8倍以上으로 擴大된 事實을 言수 있으며, 1人當 GNP도 '75年度の 532弗에서 700弗로서 168弗의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76年中 記錄한 15.5%의 成長은 '73年度の 16.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水準인데 이같은 高度成長의 主要原因은 무엇 보다도 同期間에 商品輸出이 好調를 보여 '73年の 50億3百萬弗에서 78億 1千萬弗로 56.2%가 增加하였으며 特히 製造業部門이 '75년에 12.9% 成長에 이어 26.1%로 顯著한 伸張을 記錄했기 때문이다.

投資財源의 調達에 있어서도 國民貯蓄率은 前年度の 18.0%에서 22.3%로 擴大된 反面 海外貯蓄率은 前年の 11.3%에서 2.6%로 顯著히 떨어져 投資財源의 自立度가 크게 改善되었다.

그러나 國民의 租稅負擔率은 前年度の 17.1%에서 19.0%로 上昇하였으며 總消費 增加率도 前年の 5.9%에서 7.5%로 增加하였 음을 볼수 있다. 特히 總消費增加率을 主体別로 보면 民間 消費는 5.9%에서 7.0%로 그增加幅이 적은데 反하여 政府의 財政 支出擴大로 政府部門에 서는 前年度の 5.8%에서 11.2%로 그增

加幅이 크게 拡大된 事實을 볼수 있다.

G N P, 消費 및 固定投資의 增加率 (1973-1976)

内 容	1973	1974	1975	1976
G N P 總規模 (經常) (億원)	49,016	67,471	90,803	121,434
G N P 成長率 (不變) (%)	16.7	8.7	8.3	15.5
總消費增加率 (%)	7.9	6.7	5.9	7.5
固定投資增加率	29.2	10.2	12.4	23.3
總投資과 財源 (經常)				
總 投 資 率 (%)	26.3	31.2	27.3	25.0
國 民 貯 蓄 率 (%)	22.1	19.3	18.0	22.3
海 外 貯 蓄 率 (%)	4.1	13.5	11.3	2.6
1 人 当 G N P (弗)	361	481	532	700
勞 動 所 得 分 配 率 (經 常)	37.4	37.1	38.8	41.7
G N P Deflation (%)	9.5	26.7	24.2	15.8
租 稅 負 担 率 (%)	13.3	15.2	17.1	19.0

資料： 韓國銀行統計年鑑，1977 現在

經濟企劃院，白書，1976

한편 分配所得面에서 보면 勞動所得分配率이 前年の 38.8%에서 41.7%로 높아진 反面 非法人企業所得 및 財産所得分配率은 前年の 43.5% 및 11.2%에서 40.7%, 11.1%로 다소 떨어졌던

産業別로는 農業部門이 지속적인 豊作으로 7.6%, 漁業 遠洋漁業의 伸張으로 20.1%의 增加를 보여 農林, 漁業部門이 12.9%에서 25.4%, 社会間接部門이 5.8%에서 11.3%로 各各 增加한 面을 볼수 있다.

한편 北韓은 '60年代에 들어 와서 社会主義工業化가 完成되고 農村이 비약적인 發展을 이루어 명실공히 經濟建設이 完了된다는 目標下에서 推進된 7個年計劃(1961-'70)이 失敗하자 北傀는 지난 '65년부터 公式적인 經濟統計조차 發表하지 못하고 주로 防衛 産業育성과 軍事力強化로서 住民들의 不滿을 抑压하고 있는 実情이다. 即, 지난 '60年代의 7個年經濟計劃中 重工業分野에 集中投資로 因한 生産財生産의 增加는 軍需工業基地를 強化하는데 기여케 되고 이로 因한 中央財政調達の 硬塞이 輕工業部門을 압박하였고, 따라서 農業部門이 輕工業原料의 대란을 供給하는等 産業間 커다란 不均衡이 持續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70年代에 들어 와서 6個年計劃을 推進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주로 지난 期間까지 이루어 놓은 産業의 内部的 취약점을 補完하여 技術革命의 次元을 提高하는데 力點을 두고 産業立地條件의 不利한 點을 극복하면서 地域單位經濟体制의 구축을 수행함으로서 '80年代에 対応하려는 企圖를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GNP 및 1人當 GNP 增加推移를 1965년부터 1974年 및 '76년까지를 볼것 같으면 同期間的 GNP의 增加率이 約 2.6倍('65-'74年)에 達함으로써 韓國의 5.7倍에 比해 約 절반에 未達하고 있는 実情을 볼수 있으며, 1人當 GNP는

同期間에 韓國이 4.8 倍에 達하고 있으나 北韓은 2.2 倍의 增加에 不過한 現象을 볼수 있다.

以上 '60 年代 中半期부터 '76 年까지의 10 年間 南·北韓의 GNP 및 1 人當 GNP의 年度別 變化推移를 檢討하였으나 嚴格한 意味에 서의 南·北韓 國民所得을 正確히 比較하는데 있어 서는 北韓의 所得計定과 概念이 相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制約要因이 抬頭하고 있으나 問題는 北韓의 産業構造나 GNP의 算定根拠가 主로 獨裁主義的인 生産管理와 分配樣式에서 歪曲되고 不公平한 二重的인 數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混亂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國民總生産增加推移

(單位：100 萬弗)

年 度	中央情報部 推計		國土統一院 推計	
	國民總生産	成 長 率	國民總生産	成 長 率
1965	1,983	9.1	1,810	-
1970	2,998	10.2	3,190	17.3
1971	3,221 e)	7.4	3,460	8.5
1972	3,853 e)	19.6	3,750	8.4
1973	4,953 e)	27.5	4,208 e)	12.2
1974	5,494 e)	10.3	4,762 e)	13.2
1975	5,977 e)	10.3	5,382 e)	13.0
1976	6,594 e)	10.3	-	-

資料：南·北韓經濟力比較，6 個年計劃綜合評價，國土統一院，1976

中央情報部，北傀現況

註 e)：假 定

北地의 1人당 G N P規模

(单位:美弗)

年 度	統一院 <sup>1)</sup>	中央情報部 <sup>1)</sup>	美 CIA	I B R D	Mark Gayu
1965	147.7	162	213.9	213.9	213.9
1970	227.8	209	300.0	(301.8)	235.1
1971	240.2	225	(322.8)	(325.4)	237.0
1972	253.1	262	(347.3)	(350.8)	(239.4)
1973	276.2	326	(373.6)	(378.1)	(241.7)
1974	308.8	352	(402.1)	(407.6)	(244.2)
1975	342.1	379	(432.6)	(439.4)	(246.7)
1976	-	408	(465.5)	(473.7)	(249.1)

資料: 南·北韓 國民所得水準과 消費生活比較, 国土統一院, 1976

北傀 6 個年計劃綜合評價, 国土統一院, 1976.

따라서北韓의 1人당 G N P水準이 '75年度에 約 340 弗水準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事實이 곧 住民들의 福祉라든가 生活水準의 向上을 意味하는 것이 못되는데 340 弗에 達하는 1人당 國民所得은 大部分 軍事費支出에 集中된 所得分配과 同時에 年間 對 G N P 30% 以上에 達하는 高率의 強制蓄積을 持續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體的으로 나타난 G N P規模와 1人당 G N P水準에서 이같은 強制蓄積에 依한 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을 除外해야 만 實質的인 消費生活水準을 파악할수 있다.

## (2) 租稅負擔率의 相關關係

一般的으로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 서는 財政活動과 投資의 行態가 政府部門, 民間部門, 海外部門으로 構成된 國民經濟活動에 政府部門에 해당하고 있으며, 政府部門도 궁극적으로는 民間經濟活動에 正常的인 發展과 그土抬를 提供하기 위하여 存在하고 있다. 또한 投資活動에 있어서도 政府가 強力한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며, 特히 2次世界大戰以後 오늘날 開發途上國에 서는 政府가 投融資政策에 依하여 資源配分에 크게 介入하여 經濟活動을 主導해 나가는 面이 있기는 하나, 根本적으로 個人의 私有財產制度에 立脚하고 있는 經濟體制下에서 政府의 財政活動이란 어디 까지나 民間經濟活動과 併行하면서 그補完 手段으로서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에는 變함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財政活動이 그意味를 크게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制限된 範圍內에서의 民間의 經濟活動도 거의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政府의 財政機能은 國民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고 統制하기 때문에 投融資活動에 있어서도 民間部門이 全無한 것이 特徵이다.

即, 韓國에서의 租稅收入의 對GMP 比率인 國民租稅負擔率은 1965年度의 경우 7.2%에서 漸次 增加하여 '69年度의 경우 14.1%, 1970年度의 14.5%를 시현하고 있으며, '77年度에 경우 19%, 來年度인 '78年度의 경우는 約 19.2%를 豫想하고 있다.

이같은 租稅負擔率은 國民經濟의 規模가 擴大되고 發展함에 따라서 더욱 增大될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租稅收入의 比率을 보아야 하는데 租稅收入에 對한 統計가 없기 때문에 稅入構成中 其他收入을 除外한 項目이 歲入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適用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即 統計가 發表된 지난 1965年度의 社会總生産에 對한 歲入豫算總額의 比率은 34.3%임을 볼수 있는데 其他收入을 除外한 여러 歲入項目이 歲入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91%程度 임으로 이 二數值를 適用하여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租稅收入의 比率을 檢討해 보면 國民租稅負擔率은 同年의 경우 約 31%線을 능가 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韓國의 租稅收入의 對G N P比率

(單位：100 萬圓)

年 度	G N P (A)	租稅收入 (B)	B / A
1965	805,850	58,232	7.2
1967	1,242,350	139,434	11.2
1969	2,047,110	288,590	14.1
1970	5,545,920	367,969	14.5
1976			

資料： 韓國銀行，統計年鑑，1976

註： G N P 經常市場價格

租稅收入에는 關稅，專買入金包含



그러나 北傀가 지난 '65年以後 그들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發表를 中止하고 있으나 이같은 比重이 크게 變하지 않는다고 假定한다면 結局 지난 1970年度와 '75年度에도 30%額을 增加하고 있다고 假定할수 있으며, '70年度の 韓國의 租稅負擔率 14.5%와 '77年度の 19%와 比較하여 본다면 거의 2배에 가까운 租稅負擔率을 감수하고 있는 事實을 볼수 있다. 더욱이 北韓의 社会·總生産計定過程이 二重計算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社会總生産額이 国民總生産額보다 恒常 過大評價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 할때 (3次産業部門을 投入시킨다 하더라도) 北韓의 租稅負擔率은 前述한 30%보다 훨씬 높은 水準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北傀豫算對比社会總生産額

(單位：北傀 100 萬圓)

年 度	社会總生産額(A)	歲 入 額 (B)	B / A
1961	7,506.9	2,400.00	31.7
1962	8,398.3	2,289.36	34.5
1963	9,191.0	3,144.82	34.2
1964	10,110.0	3,498.78	34.6
1965	10,481.2	3,593.84	34.3

資料： 北傀現況，國際問題研究所，1971

北傀經濟統計集，国土統一院，1971

그러나 現在 北韓에 있어서 歳入構成의 特徵을 볼것 같으면, 北韓의 去來收入金을 韓國의 物品稅와 營業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음으로 名実共히 間接稅形態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다만 住民諸稅는 所得稅의 形態로서 直接稅이고 國家企業利益金과 協同團體의 所得稅는 法人稅와 事業所得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直接稅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歳入總額에 對한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은 約 22% 對 70%의 比率로서 区分할수 있다.

#### 다. 總生産의 增加와 國防費의 相關關係

現在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경우에도 거의 GNP의 60~70%가 直接的으로 國家豫算의 支出로서 形成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도 어느面으로 보든지 豫算總額이 GNP에 차지하는 比重은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더 큰것이 確實하기 때문에 約 80-85%程度에 이를 것이 豫想된다.

특히 1975年度 Military Balance에 보면 GNP에 對한 軍事費의 負擔率은 一般的으로 西方自由主義諸國보다도 共產圈諸國이 훨씬 높은 추세를 볼 수 있는데 蘇聯이 13% 中央이 約 7% 北韓이 15.9%에 達하고 있으며, 反面에 美國은 7%, 西獨 3.7% 韓國이 5.1%, 日本이 0.9%로 나타나 있다.

現在 北韓 金日成은 美·中共수뇌교체를 前後하여 過去 어느때보다도 軍事費 增加에 박차를 加하고 있는데, 밖으로 平和를 외치는 빈도는, 안으로 다지는 戰爭準備와 正比例한다는 金日成特有의

諸国の 軍事力 및 軍事費比較 ( 1975 年 )

	兵力 ( 千명 )	人口對比 ( % )	軍事費 ( 100 万弗 )	1 人當 負擔(弗)	軍事費 G N P
美 國	2,086	0.96	102,691	477	7.0
蘇 聯	3,650	1.42	124,000	490	13.0
中 共	3,525	0.41	17,000	20	6.9
西 獨	340	0.57	15,220	242	3.7
韓 國	600	1.71	1,500	43	5.1
北 傀 (정규)	495	3.40	1,000	61	15.9
日本自衛隊	235	0.20	5,058	45	0.9

資料 : Military Balance, 1976.

버릇이 되살아 난 것이다. 最近 數年間に 걸쳐 北傀權力核心部에 소위 人民武力部長 吳根宇等 6 名의 軍部 강경 세력이 浮上했다는 事實도 그들의 戰爭準備와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난 '75 年度 金日成大學創立 30 週年記念式을 위한 祝賀文에서 金日成 自身이 戰爭에 對한 만반의 準備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기회있을때 마다 그들 正規軍이 韓國 보다도 적은 50 萬이며, 年間 軍事費는 歲出의 16 %인 8 億弗 ( 事實이라면 G N P 의 約 8 % ) 水準에 不過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傀는 南·北對話以前인 '71 年까지 歲出對備 31 %이던 軍事費

를 '72년에 돌연히 17%로 半減했다 하였고, '73년에는 15.4%로 發表하였 다가 '75年度에는 16.4로 약간 올려서 公表했다.

即 最近 London의 「國際戰略研究所」(IISS)報告를 볼것 같으면 歲出對備 16.4%라는 '75年度 北傀軍事費는 8億7千8百萬弗을 훨씬 능가 할것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왜냐하면 北傀의 正規軍은 50萬 미만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數的으로는 韓國軍보다 열세라는 合理的인 사고방식에 西方世界는 眩惑되고 있다. 따라서 간혹 進歩的인 美國人들을 數的으로 優勢한 韓國軍이 왜 劣勢의 北傀를 單獨으로 防衛하지 못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韓國軍의 兵力은 總人口의 1.71%인데 比하여 北傀軍의 人口對備는 約 3.04%이며 韓國軍의 服務期間이 3年未滿인 反面 北傀軍들은 7年間 服務를 해야 한다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또한 北傀는 正規軍과 맞먹는 訓練量과 優秀한 裝備 및 戰鬪技術을 갖춘 4萬名의 特功隊를 保有 언제 어디서나 기습작전을 展開할수 있다.

이밖에도 個人, 共用火器 및 對空砲等으로 徹底한 射擊訓練을 멈추지 않고 있는 180萬의 勞·農赤衛隊는 特別 召集動員할 必要없이 即時 戰鬪에 投入할수 있도록 組織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습친 北傀의 可用할 戰鬪兵力은 約 234萬名으로서 總人口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數字는 2次大戰時 日本의 人口對備兵力 8.6%를 앞지르는 戰鬪力인데 即, 北傀는 人口 5名當 1名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오늘날 世界는 北傀軍事費의 虛構成을 무시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北傀가 公表해온 軍備와 歲出對備가 事實이 라면 그들은

503万未滿의 正規軍도 제대로 維持, 運營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날 西方諸國은 흔히 北僞의 虛構的 統計數字를 根拠로 하여 世界各國과의 軍事費를 比較하고 있다.

軍事費의 構造와 査定기준은 勿論 各國의 經濟体制과 豫算構造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軍事費의 測定과 投入에는 그体制나 構造에 相關없이 共通된 基準이 있는데 그것은 保有兵力 및 裝備과 國民 總生産量과의 關係이다. 예를 들면 超高價의 核裝備를 갖춘 美國과 蘇聯은 例外이나 大體로 各國의 國防費를 그保有兵力數로 나눈 兵1人當 軍費는 1人當 GNP의 最下 1.7倍에서 最高 7倍以上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例컨데 1人當 GNP가 288弗로 推定되고 있는 中共의 兵1人當 軍費는 約1.7倍인 482弗쯤 된다.

그러나 中共은 그經濟体制가 北僞와 비슷하면서도 人口가 比較도 많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들 그대로 北僞軍에 適用할수 無었다. 그러나 北僞와 動員体制가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크게 參考가 되는데 「이스라엘」正規軍의 各國兵當軍備는 1人當 GNP의 約7.7倍인 2万6千弗이며 有事時 即刻 動員이 可能한 兵力까지 合算하면 兵1人當 軍費는 1人當 GNP의 約2.1倍인 7千5百弗이 된다.

따라서 恒常完全武装한채 戰鬪態勢를 갖추고 있는 233万여 兵力을 保有하고 있는 北僞의 兵1人當 費用은 적어도 1人當 GNP의 5倍는 잡아야 할 것이다. 그中 正規軍(50.3)만을 対象으로 한다면 約 400弗 水準으로 ('76年度 IBRD 調査)로 알려진 北僞 1人當 GNP를 基準으로 한 그들의 '75年度 軍費는 10億

弗을 상회하고 空軍力만을 維持하기 위하여 서도 적어도 5億弗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内外專門家들의 共通된 見解이다.

그러나 이같은 事實은 正規軍과 맞먹는 裝備와 訓練을 갖춘 40萬의 特殊部隊와 180萬의 勞·農赤衛隊 등이 전혀 包含되지 않은 數字이다.

即, 24時間 戰鬪訓練과 戰鬪態勢를 갖춘 北傀는 正規軍의 維持費 10億弗 以外에도 184萬의 非正規軍 維持費가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正規軍 兵1人當 2千弗線은 分明하나 非正規軍의 維持費는 未知數이다. 따라서 現在 非正規軍 個人當 維持費를 最下線 1人當 GNP 規模로만 換算해도 約7億3千3弗은 別度로 計上해야 할 것이다.

結局 北傀는 戰鬪態勢下에 있는 全軍을 維持하기 위해 最少限 17億弗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事實은 GNP의 27.6%로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除外한 世界最高의 軍事費(GNP對備)를 負擔하고 있음을 뜻한다.

라. 租稅, 軍事費負擔率과 南·北韓 所得水準의 比較

本章을 通하여 이제껏 南·北韓의 總量指標로서 GNP의 成長과 1人當 GNP의 增加趨勢를 視하여 國民의 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을 各各 制度的인 側面에서 檢討하여 보았다.

租稅負擔率에 있어서는 自由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韓國에서는 直接稅를 重視하고 있으며, 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北韓은 間接稅為主

의 投資財源을 確保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結局 生活水準이라든가 消費生活의 比較를 巨視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G N P에서 擴大再生産活動을 위한 總投資率과 國民의 實質的 生活水準과 相關이 없는 軍事費를 除外해야만이 真正한 消費水準의 測定이 可能하다.

'77年度 国土統一院이 推定한 資料에 依하면 지난 '76年度 韓國의 G N P는 252億弗이며 同年의 北韓의 G N P는 約58億弗로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人口 1人當國民所得은 韓國이 700弗이며 北韓이 363弗로서 約335弗水準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總投資率의 比率은 韓國이 G N P對備 21.4%, 北韓이 37%로 나타나 있으나 이中 北韓이 外資없이 純粹한 國內蓄積으로 資本形成을 이루었다고 假定한다면 人口 1人當投資額은 韓國이 149.3弗이며 北韓은 136.1弗이다.

그러나 對G N P 軍事費負擔率은 同年의 경우 韓國이 5.3%인데 反하여 北韓은 14.9%의 높은 比重을 차지 하고 있다. 이같은 比率은 韓國의 1人當 軍事費負擔額이 約37弗인데 比하여 北韓은 約54弗로서 顯격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總投資率과 軍事費負擔率의 差異로 因한 實質所得의 隔差는 韓國의 511.7弗對 北韓의 172.9弗로서 約340弗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北韓이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軍事費負擔率을 줄이고, 投資의 效率性을 增大시키지 않으면 南·北韓의 消費生活水準은 根本적으로 將次 더욱 擴大될 可能性이 크다고 볼수 있다.

實質所得의 南・北韓比較 ( 1976 )

区 分	韓 国	北 韓
1人当GNP(弗)	698 韓銀確保値(700)	363
總投資率(%)	21.4%	37.5%
1人当投資額(弗)	149.3	136.1
国防費/GNP(%)	5.3%	14.9
1人当軍事費負擔額(弗)	37	54
1人当實質所得	511.7	172.9

資料： 国土統一院，1977

南・北韓經濟現況比較



### 第 3 章 住民實態의 比較

#### 가. 消費「패턴」과 階層別 賃金實態

一般的으로 近代化란 經濟, 社會, 政治 및 國民各者의 意識構造와 生活方式等 多方面에 걸친 同時에 포괄하는 概念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國民經濟의 發展을 意味하는 經濟的 近代化를 그 基礎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經濟的 近代化는 物量的인 成長을 基盤으로 한 近代的 産業社會로의 轉換으로서 定意될 수 있으며 近代的 産業社會로의 轉換을 위해서는 工業化가 主軸的 手段이 되고 있다. 따라서 工業化는 生産方法을 機械化함으로서 産業生産性を 높이고 國民所得을 向上시켜 福祉社會로 이끌어 가는 途徑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經濟活動의 目的은 궁극적으로 物質面에서의 國民福祉의 向上을 뒷받침 하는데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지난 1962年 부터 現在까지 推進되어 온 韓國經濟의 開發의 歷史를 통하여 達成된 여러가지 近代化의 成果中에서 우리에게 가장 主要한 것은 生活水準의 向上이다.

具體적으로 보면 期間의 高度成長과 近代化를 통하여 國民所得水準이 向上되고 이로 인한 貯蓄의 餘力이 增大하였을뿐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消費「패턴」의 多樣化와 近代化가 이루어지고 특히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水準의 隔差가 縮少되었으며, 就業率의 向上과

生活環境의 改善等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向上이 크게 進前되었다는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第2章 참조) 過去 1961년에 81.6%에 達하였던 民間消費支出의 對GNP比率도 漸次 減少하여 1973年度에는 68.2%로 크게 改善되었고, 따라서 國民의 貯蓄水準도 經濟發展의 계속적인 推進을 위한 原動力이 될 수 있었다. 即, 國民貯蓄率은 GNP에 對한 總投資水準의 높은 增加에도 不拘하고 1961년에 3.9%에서 1973년에는 22.1%로 大幅 增大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의 大部分을 海外貯蓄에 依存하던 「패턴」을 이제는 國內貯蓄을 主軸으로 하는 健實한 基盤을 形成하였고, 現在 4次5個年計劃이 끝나는 '81年度에 가서는 오히려 資本輸出까지를 計劃하는 段階에 온것이다.

또한 國民所得水準의 量的 增大는 民間消費生活의 樣相에도 變化를 招來하였는데 民間消費支出 「패턴」의 推移를 보면 1次消費라고 할 수 있는 飲食物의 比重이 1961年度에는 62.7%의 높은 比重을 차지 하였으나, 1966年度에는 58.7%로 그리고 1973年度에는 51.1%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所得水準 向上에 따른 飲食物費의 比重低下라는 「엘 겔」의 法則이 뚜렷하게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反面的 第2次 消費라고 할 수 있는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等의 支出比重은 1961년의 21.6%에서 1973년에는 25.0%로 조금씩 增加하고 있으며, 第3次消費라고 할 수 있는 保健, 美容, 交通

通信等 文化的 支出은 더욱 크게 增加하여 1961年에 15.7%에서 1973年에는 23.9%가 되었다.

民間消費支出「패턴」의 改善推移(韓國)

70年不變價格

	1次消費	2次消費				3次消費
	飲食物費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	小計	雜費
1961	62.7	10.2	6.9	4.5	21.6	15.7
1966	58.7	9.2	6.8	5.4	21.6	19.7
1971	52.6	12.3	6.6	4.5	23.4	24.0
1972	52.2	12.9	6.7	4.3	23.9	23.9
1976	51.1	13.6	7.1	4.3	25.0	23.9

資料：韓國銀行，韓國의 國民所得 및 調査月報，1974.4.1

이와같은 現象은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民間消費生活의 樣相이 漸次 多樣化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한편，1960年에서 부터 1972年에 이르기 까지 生活水準이 向上된 모습을 實証的 統計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1人當 纖維消費量은 1.8倍，1人當 紙類消費量은 4.6倍，1人當 「에너지」消費量은 1.8倍，電話保有台數는 3.5倍，「라디오」普及台數는 4.8倍，T.V普及台數는 96.7倍가 各各 增加하였던 것이다.

한편 都市와 農村의 所得水準을 比較할때 過去 顯著한 隔差를

나타내었던 都市와 農村의 所得隔差는 그동안 農漁所得増大事業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農家所得이 都市家計所得보다 더욱 急速하게 増大함으로서 그 차이는 顯著하게 줄었다.

即, 1967年만 하더라도 農家所得은 都市勞動者家計所得의 60.1%에 不過하였으나 1972년에는 83.0%로 크게 好轉되었다. 따라서 家計支出面에 있어서도 農家の 都市勞動者에 對한 比率이 1967年의 63.7%에서 1972년에는 81.9%로 增加하였지만 農家の 이같은 支出增加速度는 所得增加速度보다 더 낮아 相對的으로 農家の 貯蓄性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都市와 農村의 이같은 生活水準의 均衡的 向上은 農家販賣價格指數와 購買價格指數의 變化推移에 依해서도 알 수 있다. 即, 「페리티」指數(1970=100)가 1967년에는 96.5로서 農家の 文易條件이 不利하였으나 期間의 農家販賣價格指數의 上昇이 훨씬 빨라서 1971년부터는 購入價格指數를 上廻하기 始作하였으며, 1973年度의 「페리티」指數는 114.7로서 向上되었다. 이같은 事實은 經濟全般의 近代化趨勢에 따른 農業部門의 貨幣經濟化의 進前過程에서 前述한 바와 같은 穀價支持政策, 農業生産性의 向上等에 依하여 農家の 商品交易條件이 有利하게 轉換되었음을 意味한다.

以上과 같은 生活水準의 向上은 1970年代에 들어 와서도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한 經濟開發이 더욱 高度로 推進됨으로서 계속 向上되어 1981년에 있어서 1人當 GNP는 約 1,500 \$에 達하게 되어 消費生活의 合理化와 消費支出 「패턴」의 改善이 더욱 進前되

主要国民生活指標의 變化

	單位	1961(A)	1972(B)	1981(C)	B/A 倍
1人當 纖維消費量	kg	2.9 <sup>1)</sup>	5.2	8.5	1.8
1人當 紙類 "	"	3.3	15.2	-	4.6
1人當 「에너지」 "	"	750	1,363	3,072	1.8
1千名當 電話保有台數	台	5.8	20.2	54.0	3.5
" 라디오 "	"	25	121 <sup>2)</sup>	-	4.8
" T.V "	"	0.3 <sup>1)</sup>	29	-	96.7

資料：經濟企劃院，韓國銀行統計年鑑，1975

註 1) 1960年 值임.

2) 1973年 值임.

어 1981年度의 1人1日 「칼로리」 섭취량은 1972年度의 2,376 Cal에서 2,555Cal로 增加하게 되며, 1981年의 1人當 年間 纖維消費量은 1972年에 比하여 1.6倍가 늘어난 8.5 kg에, 그리고 1人當 年間 「에너지」消費量은 2.3倍가 增加한 3,072 kg에 達하게 될것이 予想된다.

그러나 北韓의 福祉政策의 基本方向은 지난 1970年 11月, 第5次 党大會에서 採択한 6個年經濟計劃에서 「人民生活의 均衡的 發展」에 두고 '70年代 中半期까지의 具體的 施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戰力培養을 優先的으로 確保한 연후에 住民生活向上을 圖

謀한다고 함으로서 最大限의 節約과 蓄積으로 戰爭準備와 소위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業을 能動的으로 마지할 수 있는 物質的 準備를 先次的으로 圖謀하면서 모든 勞動者들의 生活을 다같이 고 르게 높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所得隔差의 縮少 및 階層 間 所得의 均等化에 있어서는 「勞動者와 農民의 生活水準에서의 差異, 都市와 農村住民들의 生活條件에서의 差異를 빨리 없애야 한다」 는 것이며 그 방도로서는 勞動者의 現在의 生活水準으로 農民生活 을 끌어 올리도록 所得의 均等を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페리티 指數의 推移 (1970 = 100)

	農家購入價格指數(A)	農家販賣價格指數(B)	「페리티」指數(B/A)
1967	65.8	63.5	96.5
1968	78.8	74.3	94.3
1969	86.8	84.8	97.7
1970	100.0	100.0	100.0
1971	111.4	121.4	106.1
1972	130.5	147.9	113.3
1973	143.1	164.2	114.7

資料：韓國銀行 統計月報

둘째로, 國民所得 1.8 倍의 提高에 따라 勞動者 事務員들의 月平 均 勞賃水準을 '70 年度의 70 원에서 부터 '76 年度의 90 원으로

인상시키며 農家の 現金收入을 '76年度에 年間 1,800 원으로 提高시켜 出것을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北傀가 国民所得 1.8 倍의 提高計劃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年平均 10.3%의 成長을 이룩해야 하는데 同計劃이 그대로 수행되면 '76年度에 北傀의 1人당 国民所得은 約 343 弗에 達하게 되는 것이다.

세제, 社会文化施策費를 '76年度에 가서 '70年度比 1.5 倍로 增額한다고 宣言함으로써 '76年度 社会文化施策費는 '70年度の 社会文化施策費 3億 9,000 万弗의 1.5 倍에 該當함으로써 約 5億 9,000 万弗에 達하게 되나 期間中 前記 国民所得增加 1.8 倍에 比해 0.3 倍나 未洽된 結果를 노정시킴으로서 勞賃引上 1.3 倍와 아울러 低調한 所得引上に 不過하다. 이와같이 北韓이 標榜하고 있는 福祉政策에 併行하여 北韓의 年度別所得增加率을 볼것 같으면 優先 北韓은 休戰後 1959年까지 4次에 걸쳐 一律的인 賃金引上을 實施하였으나 지난 '60年代에는 '70年度 9月の 引上措置를 除外하면 過去 10年間に 걸쳐 한번도 全般的인 賃金引上을 断行한 바 없었다.

即, 休戰以後 59年度까지 戰後復旧過程에서의 社会的 混乱과 物價 昂騰, 그리고 物資의 欠乏狀態에서 北傀는 名目上 54年度에 25%, '57年度에 35%, '58年度에 10%, '59年度에 40%씩 一律的인 賃金引上措置를 取하였으나 同期間的 年平均 實質賃金은 不過 6% 上昇에 不過하였다.

'59年度 2月, 北傀는 「100:1」의 平價切下인 貨幣改革을 通하여

遊休資金 및 市場貨幣의 많은 部分을 凍結하여 通貨의 安定을 劃策하는 同時에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基盤을 金融面에서 堅固化 하는데 力點을 두고서 強壓的인 價格政策과 併行, 物價의 安定을 圖謀하는데 注力하여 왔다. 다음 '67年부터 '69年度까지의 期間의 賃金引上은 '67年 3月 最低級勞賃의 部分的인 引上과 '67年 10月 初等敎員에 對한 40%의 引上措置뿐이었으며, '65年度에 全般的으로 30%引上을 計劃하였으나 當時의 勞動生産이 이에 未洽한 極히 低調한 狀態였기 때문에 財源調達의 苦難을 가져와 結局 中斷되고 말았다. 그後 同引上案은 5年後인 지난 '70年 9月 1日에야 31.5%의 引上率을 갖고서 施行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60年度부터 '70년까지 期間에 北僞國營部門의 賃金, 俸給 및 勞動者의 總收入은 名目上 年平均 4%씩 引上되어 '70年末 現在 月 70원 (北僞元)에 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67年末 現在 階層別 賃金實態를 보면 勞動者의 경우를 8等給으로 区分하여 最低 30원, 最高 109원으로 되어 있으며, 事務職은 勞動者 4給工에 該當하는 月俸으로서, 管理職은 55원 - 250원 水準으로 各各 推定되어 事務職이 勞動者의 賃金보다 낮은 狀態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지난 '60 - '70年間에 韓國에 있어서의 鉦工業部門의 實質賃金이 年平均 約 28% 成長한데 比하여 同期間동안 北韓의 勞動者 事務員의 4%成長과 견주어 보아 實質賃金의 上昇率은 韓國이 훨씬 優位에 있음을 볼 수 있다.



北 傀 의 賃 金 成 長 推 移

区 分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70
1人当 月平均賃金 (北 傀 元)	(21)	(46)	(50)	(52)	(51)	(52)	(53)	70
	100	221	234	242	245	244	248	(326)
	-	-	100	103	105	(104)	106	(139)
	-	-	-	100	101	(100)	(102)	(135)
	-	-	-	-	-	100	102	(134)
劳賃賃金成長	98	-	203	(210)	211	211	218	(282)
49年 = 100	-	-	100	(103)	(104)	(104)	(107)	(139)

資料 : '69年까지 朝鮮中央年鑑, 65年版

註 : 괘호내 数值推定, 各年度末 現在規準

예를 들어, 1967年度만 보더라도 北韓의 労働者 事務員의 月平均賃金은 53원에 達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同年의 韓國의 貨幣価値로 換算하면 約 5,618원에 該當함으로써 韓國의 労働者 및 事務員賃金の 55%에 該當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을 評價하여 보면 北傀는 지난 '60年代를 經過하는 過程에서 國防費에 그들 総予算의 30%를 支出하고 海外貯蓄의 増大를 期할 수 없는 条件下에서 戰時經濟体制의 強化를 標榜하면서 耐乏生活과 勞力動員의 強要만으로 一貫하여 왔다. 따라서

北傀가 '71-'76年間 勞動者, 事務員의 所得增大를 '70年度의 70원 線에서 '76年度 目標 90원에 達할 것을 計劃함으로서 年平均 約 4.3%의 伸張을 내세우고 있으나 期間의 物價上昇率 年平均 2% 内外를 감안하면 實質賃金を 年平均 約 2%程度의 上昇에 不 過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北韓住民들의 階層別 所得은 韓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에 있으나 劃一化된 體制下에서 어느程度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韓國은 '60年代의 急速한 工業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國民所得의 急激한 增加와 함께 農·工間의 不 均衡과 階層間 所得偏在現狀이 야기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根本 的으로 生産手段의 私有를 禁止하고 있는 劃一化된 體制下에서 勞賃 的 等級에 依한 所得隔差밖에 없으므로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에서 所得配分의 均衡을 維持할 수 있는 體制上的 特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나. 住民 衣食住 生活狀態 比較

經濟成長은 經濟規模의 擴大 및 產業構造의 高度化 그自体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成長의 果實을 온 國民이 고르게 惠 沢을 받게 하여 全般的인 國民福祉를 向上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 고 있음은 이미 說明하였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 지난 '60年代의 成長은 直接的인 所得水

準의 向上 뿐만 아니라 衣·食·住 및 生活環境의 改善 뿐만 아니라 特히 前近代의 社會의 代表的 象徴이었던 農漁村生活環境의 改善은 自못 顯著하였다.

優先 國民生活面을 보면 그동안 政府는 住宅公社, 住宅銀行 등을 通하여 庶民住宅 및 「아파트」의 建設을 通하여 住宅事業을 活潑히 推進한 結果, 全國의 住宅數는 1962年度의 3,615千戶에서 '72年度에는 4,488千戶로 約1.2倍의 增加를 示現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住宅建設은 人口의 自然增加, 家口單位의 縮少化 및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等에 따른 需要의 增大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72年度 現在 住宅의 全體不足率은 22.8%에 達하고 있다.

이같은 住宅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政府는 '72-'81年의 期間中 總 2,500千戶의 住宅建設과 農漁村住宅改良事業을 積極적으로 推進하여 1976年度에는 住宅不足率을 全體의 20.8%로 改善하였고 '81年度에는 10.4%로 緩和시킬 것이 予想되고 있다.

食生活에 있어서도 所得增大와 더불어 커다란 變化를 招來하여 '61年度에 飲食物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所得에서 62.7%이던 것이 '73年度에는 51.1%로 減少하였고, 特히 期間의 政府의 低穀 價政策은 食生活安定에 공헌한 바 있으며 '76년부터는 農業部門의 生産性의 增大와 品質의 改良으로 드디어 主穀을 自給하는 段階에 突入하였다.

2次消費品인 被服費가 차지하는 比重도 所得에서 '61年度에 10.2%에서 '73年度에는 13.6%로 增大하는 現象을 볼 수 있

는데 이 같은 現象은 「엘겔」係數의 相對的인 減少趨勢에 起因하는 것이다. 따라서 1人當 纖維消費量은 '61年度에 2.9 kg이던 것이 '72年度에는 5.2 kg로 約 1.8 倍나 增加하였고 '81年度에 가서는 다시 8.5 kg으로 增加할것이 予想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個人商工業이 消滅되었고 市場의 機能이 없기 때문에 食糧을 配給制度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休戰以後 北傀는 모든 建物(住宅包含)은 形式에 있어서는 民族的이면서 內容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인 住宅을 지어야 한다고 制限 措置를 내리는 한편 一切의 建築資材를 工場이나 公共建物에 돌렸기 때문에 住民들은 1956年度에 이르자 비로소 住宅建設에 손을 대기 始作하였고 農村住宅을 착수한 것은 1961年 以後의 일이다.

「아파트」나 集團式 農村建物を 設計하게 된것은 社會主義的 理論, 即 住民들을 集團主義體制로 集團收容함으로서 監視, 動員의 便宜를 볼 수 있고 勞力의 浪費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北韓都市에 있어서 住民들은 1號에서 4號까지의 住宅과 特別住宅의 5等分으로 区分되며 身分에 따라 住宅이 割當되고 있다.

특히 家族數에 依해서 住宅의 크기를 定해 주지 않기 때문에 子女가 많은 庶民層은 소위 1號住宅房 한칸에서 生活을 해야 한다. 食生活에 있어서도 北韓의 경우 食糧의 一日配給量은 一般勞動者와 事務員이 600g, 重勞動者가 700g이며, 그나마 그들의 主食인 쌀과 옥수수의 比率이 平壤에서는 5 : 5, 一般的으로는 3 : 7,

나머지 2 : 8로서 階層別로 엄격한 差等を 두고 있다. 現在 北韓의 糧穀事情은 每年 20万吨以上の 不足現象이 累續되고 있는데, 그나마 外換事性이 惡化되어 食糧導入을 못하기 때문에 住民들의 食生活은 極度로 逼迫된 狀態에 있으며, 옥수수를 主食으로 할 수 밖에 없는 北韓住民들은 「펠라글라」라는 疾病이 滿延되어 日本으로부터 大量의 止血劑를 輸入하고 있다는 事實이 널리 알려져 있다.

副食物도 主食과 마찬가지로 매우 곤란한 形便에 있는데 간장이나 두부등이 不足한 狀態이며, 食料品工場에서 製造 供給하고 있으나 品質도 나쁜뿐 아니라 品責狀態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北韓의 경우 이같은 副食品이 企業的 生産이라기 보다는 計劃經濟體制와 集團化 體制로 인한 集産體制이고 生産品의 不足을 配給制度로 維持하기 위한 것임으로 韓國과는 根本적으로 相異한 樣相을 띠우고 있는 것이다.

肉類도 그들이 6個年計劃의 目標로서 '76年度에 40万吨을 計劃하였으나 實際적으로 生産水準은 30万吨을 若干 上廻하고 있으며 더욱이 一般住民들에 對한 供給은 매우 적다. 最近 닭工場을 國營으로 擴大시킨 以後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 보다 形便이 나아졌으며, 계란등이 年間 7億個로서 1人當 約 50個에 該當하는 生産量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韓國의 경우 1人當 계란 120個에 比하여 2分の 1도 안되며, 肉類消費量은 우리와 比較할 수 없는 낮은 水準에 있다.

織物과 纖維類의 生産 및 消費水準은 現在 南, 北間 더욱 큰 隔差를 보이고 있는데 韓國 年間 80 億弗의 輸出額 가운데, 纖維類가 30%를 넘고 있음으로 적어도 30 億弗을 輸出하고 있는 셈이며, 모든 國民은 現在 國際水準의 優秀한 品質의 國産織物로 豊富な 衣類消費生活을 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年間 4 億m의 織物生産量으로 이는 1人당 26 m에 不過한 量인데 그 品質 또한 單調로워서 餘裕있는 衣類生活을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다. 階層形成, 意識構造

一般的으로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은 첫째로, 勞動과 資本等 生産要素의 集中的인 投入을 意味하는 經濟的 要因과 둘째, 熟練勞動의 供給, 先進技術의 導入等 技術의 向上과, 끝으로 開發意慾과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精神等 3 가지 要因에 依해서 促進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精神的 要因과 直結되는 因子는 바로 人間의 意識構造이다.

韓國은 現在 이같은 意識構造의 特性 即, 意識構造의 時間的 「갭」과 空間的 「갭」이 相當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今後 高度成長의 持續과 1980 年代에 있어서 高度産業社會를 指向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問題點으로 抬頭하고 있다. 意識構造의 時間的인 「갭」은 바로 우리나라가 過去 10 餘年間に 걸쳐서 世界의 近代化史上 最短期間內에 가장 빠른 成長을

이룩하는데 있다. 따라서 經濟的 産業構造의 近代化는 經濟規模의 擴大나 産業構造의 改善等 經濟的인 面에서의 成果이었으나, 反對로 精神的 側面인 意識構造上的 近代化는 이같은 經濟的인 近代化를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호프만」(W.G.Hoffmann)의 工業化段階說에 依하여 우리나라의 工業化速度를 보면, 1959年の Hoffmann 比가 4.93 으로서 工業化 第1段階의 中盤에 該當하였으나, 1961年の 同比는 3.48 로서 第2段階에 突入하였으며, 1973년에는 1.63 으로서 第2段階의 終盤을 넘어서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빠른 工業化速度는 過去 「프랑스」가 工業化 2段階에 이르는에 約 30年이 걸렸다는 事實과 좋은 對照가 되고 있다.

經濟的 近代化에 比한 意識構造의 相對的인 後進性은 우리 社會에 뿌리 박고 있는 各種 不條利 및 前近代的 生活習性과 企業의 前近代的 經營方式等を 들 수 있는데, 이같은 意識構造의 後進性을 克服하기 위해서 政府는 第2 經濟理念, 教育憲章, 새마을 精神等 구현에 積極的으로 努力하여 急速히 變化하는 새로운 環境에 適應할 수 있는 意識構造와 價值觀을 確立하는데 寄與한 바 크다.

---

註1) Hoffmann의 工業化 發展段階는 生産財工業에 對한 消費財工業의 比·即 Hoffmann 比에 依하여 第1段階(5±1.5), 第2段階(2.5±1), 第3段階(1±0.5), 第4段階(1以下)로 区分되고 있다.

한편 意識構造의 空間的 「갭」은 여러가지 政治, 經濟, 文化的 要因에 依하여 發生하겠으나 그중에서도 所得配分은 가장 큰 要因으로 作用한다. 왜냐하면 經濟成長이 所得分配過程에서 커다란 不均衡을 招來할 경우 社會構造成員間에 意識構造의 「갭」은 한층 더 커질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高度成長은 所得分配에 어떠한 影響을 가져 왔는가 볼 때, 最近 IBRD와 英國의 Sussex 大學의 共同研究結果<sup>2)</sup>를 보면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에 關한 研究對象이었던 66 個國 가운데 韓國은 所得隔差가 比較的 낮은 Group에 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即, 總家計를 所得額의 順位에 따라 低所得家計 40%, 中所得家計 40%, 나머지 高所得家計 20%로 区分한 다음 이들이 차지하는 所得의 比率을 國家別로 区分한 것이다.

韓國은 低所得層이 總所得의 18.0%, 中所得層이 37%, 高所得層이 45%로서 66 個國中 斷然 隔差가 가장 낮은 Group에 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低所得層의 總所得占有率만을 比較할때 韓國은 西歐의 많은 國家들 보다도 平等度가 높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所得分配의 隔差問題는 恒常 絶對的 貧困問題와 聯關되는데 全体人口中 絶對的 貧困層에 屬하는 比率이 크면 클수록 分配問題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抬頭하기 때문이다.

---

註 2) Redistribution with growth,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BRD.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Sussex University



所得水準과 分配平等度別 諸國家의 分類

( 不平等도가 낮은 國家 )

國別(年度)	1인당 GNP (\$)	(低所得層) (40%)	中間所得層 (40%)	高所得層 (20%)
차 드(1958)	78	18.0	39.0	43.0
스리랑카(1969)	95	17.0	37.0	46.0
니제르(1960)	97	18.0	40.0	42.0
파키스탄(1964)	100	17.5	37.5	45.0
우간다(1970)	126	17.1	35.8	47.1
타이(1970)	180	17.0	37.5	45.5
韓國(1970)	235	18.9	38.0	45.0
대만(1964)	241	20.4	39.5	40.0
수리남(1962)	394	21.7	35.7	42.6
그리스(1957)	500	21.0	29.5	49.5
유고슬라비아(1968)	529	18.5	40.0	41.5
불가리아(1962)	530	26.8	40.0	33.2
스페인(1965)	750	17.6	36.7	45.7
폴란드(1964)	850	23.4	40.6	36.0
日本(1963)	950	20.7	39.3	40.0
英國(1968)	2,015	18.8	42.2	39.0
美國(1970)	4,850	19.7	41.5	38.8

특히 1人당 GNP 50弗과 75弗을 任意的 貧困線으로 定하고 여기에 該當하는 貧困層의 人口를 보면 韓國의 人口中 50弗以下는 5.5%, 75弗以下는 17%로서, 여타의 開發途上國에 比하여 貧困層의 比率이 極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比較하여 볼때, 1969年 1人당 GNP는 「필리핀」이 韓國보다 높은데 比하여 '75弗線 以下에 屬하는 人口는 全體의 30%로서 韓國의 比率보다 월등히 높은 現象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은 1人당 GNP의 水準이 比較的 낮으면서도 貧困線에 屬하는 總人口의 比重이 낮다는 事實은 階層間 所得分配가 比較的 公平하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62년부터 여지껏 推進하여온 經濟發展과 階層間 所得分配의 平準化過程에서 우리에게 가장 主要한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生活水準의 向上이다. 即 經濟成長과 近代化를 通하여 國民所得水準이 向上되고 그로 因하여 貯蓄의 餘力이 增大하였을뿐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生活「패턴」의 多樣化와 近代化가 이루어지고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水準의 隔差가 縮少되었으며, 生活環境의 改善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安定化가 크게 進前되었다는 점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으며 精神淨化運動을 통한 健全한 精神姿勢의 確立과 國民意識構造의 改革은 期間의 高度成長을 위한 高貴한 精神的 資源이 되었으며, 1980年代를 向한 高度産業社會 및 福祉社會의 建設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國民全體의 마음속에 確固한 自身感과 「비전」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北韓에서의階層構造는自由主義社會와 같이社會的報酬의自然스러운再編成 내지再分配過程을通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人爲的인社會主義化政策過程을 거처서急激하게 기록된 것이特徵이며政治的支配에依해서意圖되고計劃된方向으로再編成되어진社會的統制手段의 하나로서活用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어떤意味에서는社會主義的改造運動은 곧社會階層構造의變革作業에不過한 것이고 이같은事實은 곧住民統制의系列化를 뜻하는 것이다.

平等社會를標榜하는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現實적으로地域間的隔差와職業間的層化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一般적으로 이러한隔差와層化가發生하게 되면結局威信과序列이存在하게 되고 나아가서威信의序列이制度化됨으로서階層的構造가確立되어 지는 것이며, 오늘날北傀支配層은 한편으로 이러한發展理論을惡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合理化하는問題解決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即, 지난 1970年 11月, 5次黨大會를基準으로 할때勞動黨員은北韓全住民의約 12%인 170萬으로推算되고 있는데 이들은 곧身分別階層部의上層部로서政治的인特典은勿論, 모든社會的價值配分에 있어差等的位置를 차지하고 있는北韓社會의最高位身分層이다.

註 3) 金彩潤:北韓社會의 構造的 變動에 關한 研究:「國土統一」,  
第 4 卷, 第 4 号 國土統一院, 1974.

다음으로 核心群衆은 社会的 基本出身成分을 말함으로서 一種의 歸屬的 基準과 党에 對한 熱誠度等을 고려하여 配屬되는데 勞動者 農民의 出身으로서 過去나 現在의 政治生活속에서 異常이 없는 党의 熱性分子를 말하고 있는데 全体人民에 約 21% 程度로 推定된다.

다음 階層은 基本群衆으로서 이들은 核心階層에 屬하지 못하고 復雜한 群衆도 아닌 勞動者 農民等 소위 動搖階層을 말하고 있는데 全住民의 約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下位에는 소위 反革命 勢力으로 불리워지는 復雜한 群衆이 低辺階層을 形成하고 있다.

過去의 地主, 宗教人, 資本家와 社会生活에서 過誤를 저지른者 等を 말하며 全住民의 約 51%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多元적이고 開放적인 自由主義社会에 있어서는 階層構造도 開放적이 며 評價의 基準도 職業, 教育, 所得水準等 대단히 多樣하나 北韓의 경우 階層決定要因은 오직 權力構造에의 接近度뿐이고 따라서 기존 질서를 파괴할만한 社会變動은 이미 살아져 버리고 말았고, 結局 階層構造는 党과 國家에 對한 忠誠度, 即, 党에 對한 熱誠度에 따라 社会的 위신의 序列을 철저히 制度化한 政治的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狀況下에서 現在 北韓住民들의 不平不滿이 상당히 膨張하고 있는 것은 必然적인 事實이다. 耐乏生活과 심한 社会的 統制에서 오는 不滿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不平不滿이 自由主義社会와는 달리 傳達手段(매쓰·미디어)를 통해 全体社会에 擴散되는 일이 없고, 또한 地域的, 情報交換도 不

가능한 環境下에서 不平・不滿이 社会心理化할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個個人的 經驗的 根拠에서 가지게 되는 不平・不滿은 自然 그 범위가 小集團單位에 不過할 뿐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볼때 北韓社会는 住民들의 不平・不滿은 편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潛在性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그 対象은 主로 前述한 51%에 해당하는 復雜한 群衆이라 할 수 있다.

## 第 4 章 国民生活水準의 長期展望

이제껏 第 2 章과 3 章을 통하여 南·北韓 国民所得의 成長과 所得增加로 부터 派生하는 1 人当国民所得과 關聯하여 福祉問題를 檢討하였고 生活實態와 生活水準의 指標로서 衣食住의 形態, 階層形式과 意識構造等을 各各 檢討하여 왔다.

끝으로 本章에서는 国民生活水準의 長期展望으로서 兩體制가 指向하는 福祉 厚生政策의 基本方向과 生活水準의 長期展望을 比較의 對象으로 하였다.

### 가. 福祉厚生政策의 基本方向

自由主義經濟體制는 所得의 增大와 더불어 階層間 分配問題가 이미 1 世紀 以前에 Ricardo 로 부터 抬頭한 以來 Pigou 에 이르렀으나 오늘날 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經濟規模의 急激한 膨脹과 産業構造의 近代化過程에서 階層間 分配問題는 더욱 重要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點 劃一的인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分配所得의 絶對水準은 低位에 있으나 階層間 分配의 不均衡問題는 自由主義體制보다 덜 深刻하게 야기되는 것이 普遍的인 現象이다.

그러나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는 價格機能이 資源의 適正配分을 調整하고 있는 資本主義社會에서는 크게 問題視되고 있지 않으나 共產獨裁經濟體制는 그들이 追求한 特定目標에 따라 經濟計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檢討가 重

要한 問題가 되고 있다. 例를들면 이제껏 北韓에서는 住民들이 耐乏生活를 強要한 結果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重工業에 優先的인 資源配分을 強行함으로써 輕工業部門을 犧牲시켰고 이와같은 結果는 輕工業製品에 對한 間接稅의 부과로서 消費財價의 昂騰과 工業部門에 對한 投資財源을 主로 農業部門에서 영출한 結果로서, 農·工業品間의 交易條件의 比較는 심한 不均衡을 惹起시킴으로서 農民들의 生活水準의 궁핍상은 더욱 두드러진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北韓이 이제껏 戰爭準備를 위한 軍事力 強化와 軍需工業育成을 主로 한 그들社會主義工業化가 資本을 調運하기 위하여 農業部門과 輕工業部門을 犧牲시킨데 原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지난 3次 5個年計劃의 基本目標를 볼때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貿易構造의 改善, 食糧의 自給과 農業所得增大, 技術의 革新과 國土의 綜合的인 開發이었고 今年度부터 推進하는 4次 5個年計劃은 自力成長構造의 實現과 社會開發의 促進으로 槩約된다.

即, 前者가 資源波動以來 世界的인 經濟情勢의 變化에 따른 難關을 克服하는 過程에서 國際收支의 均衡, 投資財源의 自力調達,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自力成長構造의 實現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經濟開發의 궁극적 目標를 國民福祉向上에 두고 輸出産業育成을 통한 고용의 擴大, 農業開發과 새마을運動에 依한 生活環境의 改善 및 平衡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4次 5個年計劃은 過去의 量的인 成長為主와는 달리 社會開發方向을 우리의 經濟發展段階에 適合한 所得分配와 生活環境改善에 力點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計劃期間中 所得分

配는 經濟活動過程에서 直接發生하는 1次的 所得分配改善에 力點을 두고 教育, 保健, 職業訓練 등을 強化해 나갈것이 計劃되고 있다. 또한 長期的인 福祉社會의 實現을 위하여 綜合所得稅制와 政府의 移轉支出 등을 통한 2次的 所得分配改善에 制度와 基盤을 마련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한편 이미 推進中인 農漁村電話, 給水等 環境改善 등을 마무리 짓고 投資財源의 制約下에 經濟成長率을 높은 水準에서 維持하고 새로운 産業社會에 對処하기 위하여 서로 技術革新에 依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社會全般에 걸친 能率向上에 努力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 나. 住民生活水準의 長期展望

韓國經濟는 4次 5個年計劃期間中( '76 ~ '81 ) 國際收支의 均衡을 達成하고 雇傭을 增大하며 社會開發投資를 擴大해야 하는데 財源調達面에서 限界貯蓄性向이 3.5%水準을 上廻하기 어렵고, 外資를 年平均 20億弗以上 導入하기 어려운 制約이 있다. 이와같은 制約要目下에서 政策目標達成을 위한 成長戰略을 總量計劃模型을 通하여 比較檢討한 結果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인 産業의 育成을 中心으로 한 9.2%의 經濟成長이 豫想되고 있는데 國民總生産의 規模는 約 590億弗規模가 '81年度에 達成될 것이며 이같은 規模는 '75年度價格으로 約 1.8倍의 增加를 意味하는 것이다.

人口는 計劃期間中 年平均 約 1.6% 增加하여 總人口는 '75年度에 35百萬名에서 '81年度에 39百萬名이 豫想되며 1人當 實



經濟規模의 長期展望

( 韓國 )

	單位	1975 (A)	1981 (B)	B/A (倍數)	1977 - '81 年平均增加率
國民總生產 (GNP)	1975年 價格 10 億 원	9,080	16,214	1.8	9.2
	" 10 億 弗	18.8	33.5	1.8	9.2
	經常 價格 10 億 弗	18.8	58.7	-	-
人 口	百 萬 人	35.3	38.7	1.1	1.6
1 人 當 GNP	1975年 價格 千 원	257	4.8	1.6	7.6
	經常 價格 "	257	732	-	-
	經常 價格 弗	(532)	(1,512)	-	-

資料： 經濟企劃院, 4次5個年計劃

實國民生產은 '81年度에 '75年比 約1.6倍인 1,512弗이 豫想되고 있다.

總量規模의 이같은 膨脹에 따라 産業別 成長構造를 보면 農水産業은 이미 3次計劃期間中 比較的 順調로운 氣候條件과 生産基盤 및 새로운 品種의 開發, 遠洋漁業의 繼續的인 伸張等으로 年平均 5%의 成長率을 達成하였으나, 4次5個年計劃期間中에는 米穀의 單位當 生産性이 이미 높은 水準에 있으나 遠洋漁業의 成長趨勢가 相對的으로 鈍化되리라는 展望을 基礎로 4%의 伸張率이 期待되고 있다.

한편 鈷工業은 3次計劃期間中에는 輸出의 急成長으로 年平均 約 20.3%의 急成長을 이루었으나 4次 5個年計劃中에는 輸出의 實質增加率이 3次 5個年計劃期間中の 32.1%에 比하여 安定的인 16.0%로 策定됨에 따라 14.2%의 成長率을 計劃하고 있다. 또한 重化學工業部門은 年平均 17.3%로 成長하고 特히 計劃期間中 重點을 두고 있는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인 機械, 電子, 造船部門은 年平均 21.6%로 成長하며 一次金屬과 化學工業部門도 14.8%의 成長이 維持될 것이 豫想되고 있다.

特히 輕工業部門은 商品의 多樣化와 品質의 高級化로 成長潛在力을 계속 發揮하여 年平均 11.8%의 成長이 豫想되며 鈷業은 石炭의 增産과 支援強化로 年平均 10%의 成長을 할 것이며 社會間接資本部門 및 「서비스」部門은 電力, 通信, 教育, 保健部門의 投資增加로 年平均 約 7.6%의 成長이 期待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計劃과 더불어 環境改善과 福祉問題를 좀더 具體的으로 볼 것 같으면, 1人當 國民所得의 增大와 함께 基本的인 文化施設이 完備되고 商品의 品質改善, 教育의 質的 改善等 國民生活이 크게 改善될 展望이다.

또한 合理的이고 發展指向的인 意識構造가 確立되어 健實하고 明朗한 社會造成과 새 마을事業이 새로운 技術을 바탕으로 地域의 特性에 따라 專門化되어 農家所得은 大福 擴大되고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가 크게 縮少될 것이 豫想되고 있는데, 우선 雇傭部門을 볼 것 같으면 計劃期間中 年平均 約 3.2% 增加하여 總就業者가 '75年度의 11,934千名에서 '81년에는 14,765千名이 豫想된다. 特히

鉅工業部門의 就業者數는 年平均 7.5%增加하여 1981年度에 3,854千名이 되어 計劃期間中 1,168千名에게 새로운 就業의 機會를 提供하게 될 것이다.

計劃期間中 住宅部門은 1,333千號의 住宅을 建設하여 住宅의 普及率은 '75年の 75%에서 '81년에 80%로 提高될 것이 計劃되고 있으며, 따라서 上下水普及率을 6大都市는 '75年の 84%에서 93%로, 中小都市는 57%에서 83%로 各各 提高함으로서 1日 1人當 給數量은 216ℓ에서 252ℓ로 增大될 것이다.

教育部門에 있어서는 國民學校의 學級當 學生數를 81년에 大都市는 60名 農漁村은 45名으로 改善할 것이며 教科書支給과 育成會費를 國家가 全額負擔하며, 中學校 進學率은 '75年の 75.9%에서 '81년에 90.1%로 되며 私立中學校 人件費補助率은 10.1%에서 50.0%로 實業高校施設保有率은 42.5%에서 85.0%로 改善될 展望이다. 또한 國民保健部門을 볼때 人口數를 75年の 2,100名에서 '81년에 1,630名으로 病床當 人口數를 1,764名에서 1,575名으로 各各 改善할것을 計劃하고 있으며 畜產業의 育成으로 人口1人當 肉類 消費量을 '75年の 6.4kg에서 9.0kg으로, 牛乳는 1人當 4.6kg에서 13.0kg으로, 계란은 1人當 4.5kg에서 6.2kg으로 各各 增加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文化生活面에 있어서는 基幹高速道路網의 擴充에 이어 國道の 鋪裝率을 91%까지 提高하여 里洞通信網을 完成하여 每洞里마다 通信施設이 完備되며 1人當 電力消費量을 '75年の 471kWh에서 '81年度에 1,004kWh로 크게 늘릴려고 하고 있다. 文化生活的 向上을

위하여 電話普及率을 '75年의 100人當 3台에서 6.5台로, 家口當 T.V普及率을 '75年의 32%에서 72%로 各各 計劃하고 있다. 自動車保有台數도 100家口當 '75年의 3.1台에서 4.8台로 增加시킴으로서 國民所得의 增加에 따라 國民의 餘暇活動이 보다 活潑하게 되어 生活의 充足感이 拡大될 것이다.

끝으로 農家所得은 '81年度에 '75年價格으로 1,400千원을 達成하여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완화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으며 同時에 500個의 새마을工場을 建設하고, 400個團地의 農村副業團地를 造成하며, 32,824個所의 마을購販場과 1,490個所의 販賣場을 建設하여 農漁民의 所得을 增大시킬 것이며 道路, 電話, 通信, 給水, 지붕改良等 農漁村의 環境改善事業을 計劃期間中에 完了하여 文化生活을 위한 基盤을 劃期的으로 改善하는데 注力할 것이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國民福祉問題는 GNP의 增加와 함께 經濟部門別 構造變化만을 가지고서는 正確히 把握할 수 없는 것이 南·北間의 特徵이다. 왜냐하면 社會主義經濟體制下의 北韓에서는 階層間 所得分配問題의 不均衡보다도 社會主義經理收入과 지나친 間接稅의 過多策定으로 因한 住民들의 耐乏生活이 現在 南·北間 生活水準의 커다란 隔差를 招來하고 있으나 閉鎖體制下에 있는 北韓住民들은 「所得에 對한 消費의 相對的인 概念」(Relative Income Hypothesis)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北韓은 現在 그들의 政權創立 31年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經濟計劃도 없이 經濟的 昏迷狀態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長期經濟計劃을 採択하지 못하고 있으며 外部世界로 부터

産業裝備를 輸入하는데 必要한 外貨의 深刻한 不足狀態에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金日成은 今年度( '77年) 新年辭에서 6個年計劃期間 동안 北韓經濟가 緊張狀態에 있었으며 今年는 몇가지 国内的인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보내야 할것이라고 말함으로서 經濟計劃의 失敗를 처음으로 自認하였다.

即, 北傀의 金日成은 6個年計劃 수행 과정中 經濟部門에서 最近 緊張이 發生 鉅工業部門等 基本建設計劃에 蹉跌이 일어 났다고 말하고 따라서 今年度의 最優先目標는 鐵道建設을 비롯한 陸運 및 海運의 發展과 交通戰線이라 말하고 電力能力의 補充을 強調하고 있다.

投資規模를 擴大하지 않고서 成長率을 높일수 없다는 것은 經濟體制와 關聯없이 適用되는 命題인데 北傀가 이제껏 持續적으로 高率成長을 維持하는 韓國經濟와 競争하기 위해서 投資率을 더욱 높이고 이같이 擴大되는 投資基金不足을 外資導入으로 채우기 始作함으로서 오늘날 債務不履行 이라는 挫折感에 빠진것은 政策選擇上에 錯誤에 빠진 必然的인 結果였다고 볼 수 있다. 即, 資本主義經濟는 原來 貿易指向的이고 때문에 國際決濟技術이나 外資運營技術은 經濟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發展하는 것이다. 反面, 共產圈經濟는 이같은 外資運營의 技術은 고려하지 않은채 急激한 成長을 서둘렀고,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는 外資의 導入이 輸出增大나 輸入代替와 連結되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에 準備面에서 外換負擔이 적은데 反하여 共產圈經濟, 特히 北韓經濟에 있어서는 軍需産業에 投入됨으로서 外換準備에 外資導入이 效果를 發揮하지 못하는 問題點이 있기

때 문이다.

經濟現象은 원래 非可逆的인 現象이기 때문에 體制如何를 막론하고 일단 形成된 問題點을 短時日內에 解決하기는 不可能한 것이며 이와같은 見地에서 北韓經濟는 當分間 停滯過程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더욱이 外資에 일단 依存하는 經濟體制가 되어 버린 北韓經濟가 對外信用을 喪失한 이상 追加資本導入으로 難口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며 事理가 이러하다면 北韓經濟의 回復은 長期間의 調整이 不可避하며 그만큼 北韓住民들의 經濟的인 窮乏現象은 深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年度別生産額의 平均增加率을 볼때 北傀의 輕工業部門은 '50年代보다도 '60年代에 들어와서 훨씬 줄어들었고 더욱이 '70年代에 들어 와서는 劣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北傀는 結局 이와같은 經濟構造上의 深刻한 難關에 逢着하여 住民들의 勞動力 榨取와 生活의 緊縮을 더욱 強뻐할 것이 豫想되고 있는데 北韓에 있어서의 住民生活은 더이상 억압할 수 없을만큼 最低水準 以下의 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自身도 한때 消費生活의 向上問題가 제기되어 「人民奉仕委員會」를 新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事實은 北韓의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너무나 貧困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程度 解決하지 않고서는 勞働의 能率을 올릴수 없다는 經濟的 必然性에 기인되었고 勞動力 強化를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勞働者의 生活水準을 더이상 낮출수 없기 때문에 取해진 措置였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이와같은 措置와는 反對로

北傀工業總生産額의 年平均增加率

(單位：%)

	1954 - '56 戰後復舊 3個年計劃期間	1957 - '60 1次5個年 計劃期間	1961 - '70 7個年 計劃期間	1971 - '76 6個年計劃期間 (70年對比)
工業總生産額	41.7	36.6	12.8	14.0(2.2倍)
生産財工業	59.4	37.7	13.9	(2.3倍)
消費財工業	28.0	34.9	10.8	(2.0倍)

資料： 朝鮮中央年鑑 1965年版

勞動黨 5次大會 金一報告

消費財工業보다 生産財工業인 重工業의 投資比率은 漸次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 家庭으로 부터 女性의 解放이란 구호로서 女子들 까  
지 生産工場과 集團農場에 豫속시키는 結果로 變遷되고 있다.

食糧消費面에 있어서 北傀는 지난 10年間 量的으로 何等의 變化  
가 없다가 昨年부터는 오히려 軍用米의 備縮이라는 名目下에서 100  
g이 줄어들었고 主穀 對 雜穀의 混食比率은 地域과 階層에 따라  
더욱 큰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最近에 와서 家畜의 增殖에  
따라 肉類가 多小 供給됨으로서 섭취「카로리」率은 多小 提高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기나 酪農製品等 比較的 高價의 食物을 섭취하기  
에는 아직도 所得이 높지 못하고 '74年度現在 1日 2,000 Cal  
以上을 超過하지 못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다음 非食料品部門의 消費水準으로 지난 10年間 被服事情이 若干 好轉되었을 따름이고 耐久消費財에 있어서 「라디오」, 재봉틀 其他 약간의 家具保存에 不過하고 아직도 T.V나 電話機保有는 中央級 党幹部들에 局限하고 있다. 北傀가 6個年計劃에 反映시킨 非食料品の 生産目標는 洗濯機 年産 11.3 千台, T.V 受像機 103 千台, 化学纖維 6,137 千屯, 織物 5~6 億m, 신발 7,000 萬足, 그 中 皮靴 1,000 萬足으로 되어 있으며 其外 內衣 1.4 倍, 「웨타」 및 「자켓」 2.1 倍, 양말 1.8 倍, 알미늄製品 2.8 倍, 유리製品 5.8 倍로 計劃하였으나 結果에 對한 発表는 公布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結局 北韓에서의 實質的인 住民生活의 急激한 向上은 北傀가 限定된 資源을 軍備補充에 投入하고 다른 한편으로 海外資本의 순조로운 導入을 期할 수 없는 條件下에서 戰時經濟體制를 계속 強化하고 있는限, 實質的인 住民生活의 向上은 가까운 時日內에는 不可能할것으로 豫測되고 있으며 이點 '60年代 初半에 가서 南·北間 生活水準의 隔差는 더욱 현격하게 擴大될 것이 豫想된다.



## 第 5 章 經濟的側面에서의 統合의 展望

最近 數年間に 있어서의 東·西和解를 基調로 하는 國際政治와 經濟情勢의 變化로 말미암아 始作된 南·北間의 對話는 政治 및 軍事的인 對立關係에서 漸次 經濟的 競争으로 轉換할 可能性이 보이고 있다.

一般的으로 分断國의 統合過程이라 함은 優先 非政治分野에서의 交流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南·北間의 이같은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交流와 接觸이 欠如된 狀況下에서는 統一의 展望을 現實的으로 認定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그러나 지난 '6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間的 勢力의 多元化 現象과 強大國의 韓半島에 關한 利害關係가 現象維持와 平和定着으로 固定되자 지난 1970年 8·15宣言과 이듬해 71年 3月,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離散家族찾기 運動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劃期的인 事件이었다. 이와같은 事件은 다시 南·北統一의 原則과 그 先行條件을 천명한 1972年 7月 南·北共同聲明으로 發展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6.23特別宣言을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政府의 새로운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한 6.23聲明은 오늘날의 國際關係現況에 對한 솔직한 檢討와 現實主義的인 接近方法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껏 우리는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北傀의 國聯加入을 阻止해 왔는데, 國聯總會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될 때마다 南·北代表團의 同時招請案을

封鎖해 온 従来の 統一外交政策을 이제 6.23 声明을 契機로 하여 撤回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併行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委員長은 非政治적인 分野에 걸쳐 多方面的 南·北韓交流를 提高한바 있었다. 特히 이 가운데서 南·北韓 經濟人의 相互交流와 商社의 相互常住問題는 特記할만한 것이며 더욱이 南·北韓이 同時에 國聯이라든가 其他 國際機構의 加入을 前提로 한다면 經濟적인 側面에 있어서도 制限된 分野에서의 協力을 위시한 問題는 매우 主要한 問題가 되는 것인데 이같은 接觸과 交流, 競爭의 諸問題는 궁극적으로 經濟統合의 前提條件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傀는 애초부터 南·北對話에 對한 底意가 悭대 있기 때문에 그들이 企圖한 意圖가 제대로 觀測되지 못한채 北韓社會를 開放하는 것이 두려워 南·北對話는 마침내 北傀의 一方的 中斷宣言과 더불어 中斷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지난 數年間에 걸쳐 우리의 이같은 平和統一努力에 比하여 現在의 北韓은 6 個年經濟計劃의 失敗와 이로 因한 여러가지 經濟發展의 制約要因과 그들 體制가 지니고 있는 硬直性等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制限된 部門에서나마 우리와의 部分的인 接觸은 이제껏 그들이 維持하여 온 體制 自体를 위태롭게 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現實적으로 그 實現이 매우 어려운 形便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東·西獨의 경우 接觸過程이 우리와 根本적으로 相異한 點은 獨逸의 경우 經濟交流가 政治的 關係에 훨씬 先行하여 왔는데 比하여 南·北間은 分斷初期에 있어서 非公式的인 物物交換의 形式으로 物

資의 交流를 한것 以外에는 아무런 交流가 없었다. 또한가지는 經濟体制의 問題點을 들 수 있는데 東獨의 경우도 初期에는 社會主義經濟建設과 重工業部門에 置重하였으나 漸次 西方側의 市場經濟와도 어느程度 連結되는 經濟体制에로의 轉換을 이루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問題는 今後 可能할수 있는 兩分斷國의 經濟的 接觸과 統合을 豫見할때 매우 主要한 條件의 比較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東·西獨이 '70年代에 들어와 基本條約의 締結과 함께 接觸과 對話를 促進할 수 있었던 契機는 西獨의 經濟에 심히 뒤떨어졌던 東獨이 最近 數年間에 걸쳐 近代的 產業國家로 비약하였으며, 이같은 經濟發展을 성취하기 위하여 西獨과의 有利한 條件의 經濟交流가 東獨에 있어서는 不可欠한 要件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東·西獨의 關係發展은 오늘날의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比較될 餘地가 많은데 特히 北傀는 '70年代에 들어와서 世界經濟의 急速한 擴大와 變化하는 國際環境속에서 그들만이 孤立되고 뒤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韓國經濟의 急速한 發展에 焦燥感을 느낀 北傀는 共產主義國家는 勿論, 西方世界로 부더도 資本과 技術의 導入에 過去보다 훨씬 積極性을 더우고 있는 樣相을 볼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北韓은 西方諸國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의 協力이 必要한데 蘇聯이나 中共에 크게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英國, 西獨, 仏蘭西, 日本等과의 經濟協力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 特히 今年부터 착수한 韓國의 4次 5個年計劃을 意識한 나머지 北傀도

이제껏 2년에 걸친 緩衝期를 지나 來年부터 새로운 長期經濟計劃을 착수할 기미가 있다.

이미 前述한 바 있거니와 韓國은 80年度初에 輸出 200億弗, 1人當 GNP 約 1,600弗의 目標達成以外에도 石油化學工業의 系列化라든가 重化學工業의 體制를 完了함으로써 中進國 最上位圈에 進入할 것이 豫想되며 北韓에 경우에도 年平均 6%水準의 經濟成長이 豫想되나 現段階에서 무엇보다도 軍事力動員에 依한 勞動力의 供給不足이라든가 外援의 不足과 內部蓄積의 限界에서 오는 資本不足과 技術水準의 落後現象이 經濟發展의 制約要因을 形成하고 있으며 여타의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지니는 伸縮性의 欠如가 經濟體制內部에서 非能率을 累積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今後 北韓은 이같은 發展의 制約要因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除去해 나가느냐 하는데 그들 發展의 觀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要因이 除去된다면 '80年代에 가서는 北韓도 近代的인 産業國家로 登場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今後 南·北關係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게 되는데 即, 北傀가 이제껏 固守해 오던 好戰性과 그들 社會主義建設過程에서 追求하여 오던 政治優先을 漸次 經濟優先으로 轉換하여 그들 經濟發展을 極大化한다면 오늘날 東·西獨의 接近模型이 韓半島에서도 適用될수 있다는 可能性을 豫想할수 있으며, 反面에 北傀가 '60年代와 마찬가지로 그들 體制의 硬直性을 그대로 固守하면

서 外部로 부터 孤立된 가운데 潜在的인 軍事力 強化爲主의 戰爭  
經濟能力을 培養한다면 北韓의 經濟는 더욱 沈滯되고 궁극적으로  
南·北間 国力의 不均衡은 擴大되어 韓半島에서의 緊張은 더욱 高  
潮될 危險性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